

조선 金正喜가 청 翁樹崐에게 보낸 《高麗史鄭道傳》

朴 現 圭*

<目 次>

I. 서론	IV. 《高麗史鄭道傳》의 편찬 과정
II. 金正喜와 翁樹崐의 교류 개황	V. 翁樹崐 동시대의 《高麗史》 소장 현황
III. 馮平山圖書館藏本 《高麗史鄭道傳》의 서지사항	VI. 결론

I. 서론

한중 양국의 교류사를 돌아켜보면 우호를 기반으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와 학문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한 인물들이 매우 많다. 조선 金正喜와 청 翁樹崐 사이에 맺어진 우호 교류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翁수곤은 부친 翁方綱의 서재에서 동갑내기 김정희를 만나 평생의 지기로 삼고 양국에 있는 자료를 주고받으며 참된 우정을 키웠다.

오늘날 국내외도서관에 김정희와 翁수곤이 주고받았던 문헌들이 일부 남아 있다. 예를 들면 고려대 소장 釋文本 《平百濟塔》, 과천 추사박물관 소장 《海東金石零記》,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 《海東文獻》 등이 있다. 필자는 일전에 이들 문헌을 통해 翁수곤이 김정희에게 해동 금석의 탁본을 구하거나 석문들을 교정했던 과정을 살펴보았다.¹⁾ 이번에 이들 사이의

* 順天鄉大學校 學術研究支援論文

학문 교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책자인 《高麗史鄭道傳》을 소개하려고 한다. 《고려사정도전》은 《高麗史》 열전 중의 한 편인 <鄭道傳>을 단독으로 분리한 책자이다.

《고려사정도전》은 현재 香港大學(The University of Hong Kong)의 馮平山圖書館(Fung Ping Shan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馮平山圖書館은 홍콩섬 薄扶林道에 자리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자의 존재를 1980년에 饒宗頤의 선본서목을 통해 처음 알았고, 1998년에 翁수곤의 《해동문헌》을 분석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한 적이 있다. 2011년에 다시 한 번 원본을 실사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사정도전》의 서지사항과 소장과정, 김정희와 翁수곤 사이에 이루어진 책자 편찬 과정, 그리고 翁수곤 동시대에 활동한 중국 문사들의 《고려사》 소장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II. 金正喜와 翁樹岷의 교유 개황

1809년(순조 9) 겨울에 김정희는 동지 겸 사은부사 생부 金魯敬을 따라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연경(북경)에 도착했다. 연경에서 1달 보름 정도 머물 동안 많은 청조 문사와 만나 학문을 토론하고 견문을 넓혀나갔다. 특히 청 문단을 이끌어가는 대학자들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학문적이나 예술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810년(순조 10) 정월 29일에 김정희는 청 문인 李林松(心庵)의 안내를 받아 宣武門 바깥 保安寺街에 자리한 翁방강의 石墨書樓(일명 石默書樓)를 방문했다. 당시 김정희는 학문 추구에 열정이 가득한 25세의 젊은 청

-
- 1) 朴現圭, <清翁樹岷海東金石資料의 札記>, 《國際中國學研究》, 7집, 韓國中國學會, 2004.12, 319~332쪽.
 _____, <《海東金石零記》의 저자와 분석>, 《大東漢文學》, 35집, 大東漢文學會, 2011.12, 385~413쪽.
 _____, <청 翁樹岷의 『海東文獻』 분석>, 《順天鄉語文論集》, 5집, 順天鄉語文學研究會, 1998.8, 250쪽.

년이었고, 옹방강은 당대 학문을 이끌어가는 78세 노구의 대학자이었다. 옹방강은 김정희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자신의 수장고인 석목서루를 활짝 열어 금석, 서화, 진적 등 진귀한 보물을 보여주고, 또한 경학과 고증학을 논하며 청조 학문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김정희 또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드러내어 나중에 옹방강으로부터 ‘經術文章, 東國第一’이라는 호평을 받았다.²⁾

이날 만남에 옹방강의 두 아들 翁樹培, 翁樹岷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옹씨 형제는 김정희와 만나 학문을 논하며 부친과 더불어 우호 교류의 장을 열어나갔다. 특히 옹수곤은 김정희와 동갑내기이고 모두 금석학에 심취해 있는 사실을 알고 의기투합하여 평생의 지기로 삼았다. 김정희가 귀국한 후에도 계속 제삼자를 통해 양국의 금석 탁본과 문헌을 주고받으며 고증학에 대해 심도 있는 지면 토론을 전개하였다.

1812년(가경 17)에 옹수곤이 홍현주에게 보낸 간찰에 김정희와 지기였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대목이 있다. 나와 김정희는 동갑이다. 동방의 저명한 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김정희로부터 이루어졌다. 오류 중에 좋은 벗이 있어야 하는데, 좋은 벗 중에는 김정희가 없어서는 안 된다.³⁾ 옹수곤과 김정희가 남긴 교류 모습을 종합해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들에게 참된 우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또한 해동금석문 연구가 오래가고 단단한 금석의 성질처럼 후대에 널리 전해지고 언급되는 업적을 남겼다. 아쉽게도 1815년(가경 20) 8월 28일에 갑자기 옹수곤이 별세하는 바람에 이들 사이의 교류 활동은 더 이상 전개되지 못했다.

2) 藤塚鄰著, 藤塚明直編, 《清朝文化東傳の研究: 嘉慶·道光學壇と李朝の金阮堂》, 東京, 國書刊行會, 1975.4; 朴熙永譯,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1994.4, 103~104쪽.

3) 藤塚鄰, 앞의 국역본, 186쪽.

Ⅲ. 馮平山圖書館藏本 《高麗史鄭道傳》의 서지사항

馮平山圖書館은 香港大學에 소속된 한 도서관의 명칭이다. 풍평산은 20세기 초반에 홍콩에서 활동한 廣東 新會 會城鎮 출신의 華人 사업가이다. 이름은 朝安이고, 자는 昆炎이며, 平山은 그의 別字이다. 1927년에 영국식 교육의 산실인 香港大學에 漢文科 설치를 건의하여 中文學院을 설립시켰고, 1929년에 중국 학술의 발전을 위해 거금을 내어 현대식 중문도서관 건물을 착공시켰다. 1932년에 도서관 건물이 완공되자, 대학에서는 풍평산의 업적을 조명해 풍평산도서관이라고 명명했다. 1961년 대학 내에 새로운 도서관 건물이 완공되자, 풍평산도서관은 신축 도서관의 일부로 들어갔고, 옛 건물은 馮平山博物館으로 사용되고 있다.

풍평산도서관은 동남 지역에서 명망 있는 중문도서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곳에 소장된 고문헌 가운데 선본이 꽤나 있는데, 그 가운데 吳興 劉氏(承幹) 嘉業堂, 南海 黃氏(慕韓) 勉學齋의 구장서가 골간을 이루고 있다. 1970년에 요종이가 풍평산도서관에 소장된 선본 223종을 해제한 《香港大學馮平山圖書館藏善本書錄》을 내놓았고,⁴⁾ 2003년에 香港大學圖書館 관계자들이 요종이의 선본서록을 토대로 보완하고 훗날 새로 입수한 선본들을 증보 해제한 《香港大學馮平山圖書館藏善本書錄》을 내놓았다.⁵⁾

풍평산도서관에 《고려사정도전》이 소장되어 있다. 청구번호는 善783.28/87/87분이고, 등록번호는 63,675본이다. 전 1권 1책이고, 총 27장이다. 판란은 四周單欄이고, 매 반곽의 행자수는 10행 17자이다. 판구는 백구이고, 어미는 上2葉花紋魚尾이며, 판심제는 없다. 책 전체 크기는 30.3×19.2cm이고, 반곽 크기는 20.0×14.7cm이다. 침안은 원래 5침안인데, 훗날 보수하면서 7침안으로 바꾸었다.

4) 饒宗頤編, 《香港大學馮平山圖書館藏善本書錄》, 香港, 龍門書店, 1970.12.

5) 《(2003년)香港大學馮平山圖書館藏善本書錄》은 李直方·張麗娟이 增補하고, 尹耀全·陳偉明·林柔雲이 편집을 맡았다.

권수제는 ‘列傳卷第三十二/高麗史一百十九’이고, 저자는 두 행에 걸쳐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館大司成臣鄭麟趾 奉/教修’라고 적혀있다. 열전명은 ‘鄭道傳’이다. 권말제는 ‘列傳卷第三十二’이다. 본문을 전록하다가 글자를 잘못 적으면 틀린 부분을 오려내고, 다른 종이를 붙여 그 위에 수정된 글자를 적어놓았다. 본문에서 조선 왕실과 명 황실을 지칭하는 글자, 즉 ‘太祖’, ‘太宗’, ‘本朝’, ‘聖明’, ‘天子’, ‘帝’ 등이 나오면 공경하는 의미에서 행을 바꾸는 대두법을 사용했고, 또 ‘天使’, ‘朝廷’ 등 글자가 나오면 공격, 즉 그 글자 앞에 한 글자를 비어놓았다. 대두법과 공격은 초록자가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현존 最古本 乙亥字本을 비롯한 각종 조선인본 《고려사》의 기술체제를 본받아 놓은 것이다.

장서인으로 「大興翁氏/石默書樓/珍藏圖書」(주방인), 「吳興劉氏嘉/業堂書藏書記」(주장인), 「香港大學馮/平山圖之書」(주장인)가 찍혀있다. 책자 속에는 유씨 가업당에서 제작된 “嘉業堂藏書”라는 藏書籤紙가 꼽혀있다. 장서 첨지에 기술된 서지사항을 옮겨보면 분류는 ‘史部 載記類’,⁶⁾ 책명과 권수는 ‘鄭道傳一卷’, 저자는 ‘高麗鄭麟趾撰’, 종이와 판본은 ‘白皮紙黑絲鈔本’, 책수는 ‘一’, 출처는 ‘大興翁氏舊藏’이다. 또 첨지 상단에는 ‘高麗史一一九, 列傳三二’와 ‘95’가 적혀 있다.

大興翁氏 石默書樓는 옹방강의 장서루이다. 1818년(가경 23) 옹방강이 세상을 떠난 후에 석묵서루가 해체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다. 옹방강 생전에 아들 모두가 세상을 떠나버렸고, 오로지 5세의 翁引達, 부인네들만 남아 쓸쓸히 석묵서루를 지키고 있었다. 옹방강 사후 한동안 그의 수제자들이 주변에 남아 있어 석묵서루의 장서가 나름대로 보존되고 있었으나, 이들이 외지로 부임하거나 상을 당하여 연경을 떠나자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1820년대 말에 장서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석묵서루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829년(도광 9)에 옹방강의 제자 蔣攸銛(礪堂)이 한 친우에게 보낸 간

6) ‘傳記類’에서 ‘載記類’로 고침.

찰에서 석목서루에 스승이 심혈을 쏟아 모은 서적, 금석, 서화, 탁본 등이 풍부하고, 또한 스승이 평생 간행한 책자, 원고본 등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유리창 서상들이 옹씨 유족에게 접근하여 장서들을 빼들려 지금 남은 것이 별로 없다며 한탄했다.⁷⁾

1833년(도광 13) 경에 옹수근의 친우인 葉志誥이 김정희에게 보낸 간찰에서 1829년(도광 9)과 1830년(도광 10)에 연이어 부모상을 당하여 연경을 떠나 있을 동안에 옹인달이 방탕한 생활과 나쁜 벗의 유혹, 유리창 서상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석목서루의 장서를 죄다 팔아버렸다고 한없는 애통함을 토로했다.⁸⁾ 이때 《고려사정도전》도 석목서루의 다른 장서와 함께 연경 유리창으로 흘러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정도전》은 근대에 저명한 장서가인 유승간의 가업당으로 들어갔다. 유승간의 자는 貞一이고, 호는 翰怡이며, 절강 南潯 사람이다. 민국 이후에 甬東 盧址의 抱經樓, 獨山 莫友芝의 影山艸堂, 仁和 朱一勤의 結一廬, 平湖 陸燿의 奇晉齋 등 명문 장서가들이 내놓은 고문헌을 수집하여 한때 송·원본 155종, 지방지 1천여 종 등 진귀한 귀중본을 보유하여 당시 일 안에 대장서가가 되었다. 그러나 가업이 쇠퇴한 1933년부터 송원본과 귀중본을 중심으로 서상에게 팔려 나갔다. 훗날 이들 책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현재 중국 지역의 여러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만 국가도서관에 가업당구장 조선간본 《書集傳》이 소장되어 있다. 1951년에 가업당에 남은 명칭본 11만 종, 잡지 3천여 종, 판목 3만여 판은 浙江省圖書館에 매각되었다.⁹⁾

1950년대 초반에 香港大學 풍평산도서관은 요중이의 건의에 따라 유씨

7) 《緣督廬日記抄》 권5 己丑(1829) 5월 7일조 蔣攸銛(礪堂) 간찰: 「覃谿師上元前, 尙寄手示, 不意竟歸道山, 以文望壽考而論, 原無遺憾, 惟門祚零丁, 僅遺五齡幼孫, 殊堪愴惻. ----- 再吾師一生心血, 全在書籍·金石, 所藏卷軸·碑板不少, 而生平著作, 已刻及未刊皆有. 聞此時琉璃廠店戶, 業經句串零售, 殊可浩歎.」(續修四庫全書本, 책576, 471쪽)

8) 藤塚鄰, 앞의 국역책, 240~241쪽.

9) 1920년에 건설된 가업당 장서루에는 유승간이 새겼던 판목들이 보존되어 있다.

가업당에서 흘러나온 일부 장서를 구입했다.¹⁰⁾ 이때 《고려사정도전》은 다른 가업당장서와 함께 풍평산도서관으로 들어왔다. 요종이는 광동 潮安 출신으로 1949년에 홍콩으로 이주했다. 1952년부터 香港大學 中文系에 있으면서 중국 국학 발전에 힘을 쏟은 한학자이다. 조주에는 요종이의 학문을 기리는 饒宗頤學術館이 세워져 있다.

끝으로 《고려사정도전》의 판본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유씨 가업당의 장서침지에는 《고려사정도전》의 판본을 ‘白皮紙黑絲鈔本’이라고 기재했다. 1970년에 요종이는 가업당 장서침지를 좇아 ‘白皮紙烏絲欄鈔本’이라고 명명했고, 2003년 李直方·張麗娟 등은 요종이의 해제 내용을 그대로 전록해놓았다.¹¹⁾ 이들은 종이를 닥나무 껍질로 만든 고급 皮紙로 보고 있으나, 어느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려사정도전》에 사용된 종이가 한반도에서 닥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전통 조선종이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고려사정도전》은 1814년(순조 14) 경에 김정희가 만들어 옹수곤에게 보낸 책자이다. 중국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조사해보면, 가끔 한국 고문헌을 중국 고문헌으로 잘못 해제한 경우가 있다. 가업당과 요종이가 한국 고문헌을 볼 기회가 적어 《고려사정도전》이 조선 종이였고, 조선에서 필사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고려사정도전》의 권수제에는 《고려사》의 여타 권수제처럼 鄭麟趾 등 修史官이 편찬했다는 제명이 들어가 있다. 가업당과 요종이는 《고려사정도전》 해제에서 모두 鄭麟趾의 국적을 ‘高麗’라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 정인지의 출생년은 조선 건국 이후인 1396년(태조 5)이고, 1414년(태종 14)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 생활에 나섰다. 세종 연간에 金宗瑞, 申概, 權躡 등이 《고려사》의 개찬 작업에 참여했고, 1451년(문종 1)에 모든 작

10) 李直方, <後序>, 《香港大學馮平山圖書館藏善本書錄》, 홍콩, 香港大學出版社, 2003, 377쪽.

11) 香港大學馮平山圖書館編, 《香港大學馮平山圖書館藏善本書錄》, 홍콩, 香港大學出版社, 2003, 71쪽.

업을 마치고 <進高麗史箋>을 올렸다. 각종 중국 고서목록이나 고서 해제를 보면 한국 조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고려’ 또는 ‘조선’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인들이 한국 조대를 잘 모르는 점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로부터 전해오는 편의적인 관습에서 나왔다.

IV. 《高麗史鄭道傳》의 편찬 과정

《고려사》는 고려 시대의 역사를 기전체로 기술한 책자이다. 조선이 건국되는 해부터 고려 역사를 편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여러 차례의 중단과 개수 작업을 거쳐 1451년(문종 1)에 완성되었다. 1452년(단종 즉위년)에 처음 인출되었는데, 이때 내부에만 보관할 정도로 극소량이었다. 현존 最古本은 1482년(성종 13) 경에 인출된 을해자본이다. 옹수곤과 옹방강이 해동 금석을 고찰하기 위해 여러 책자를 활용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한 책자가 《고려사》와 《東國史略》이다.¹²⁾ 《고려사정도전》은 《고려사》 열전 중의 한 편이다.

香港大學 풍평산도서관 소장본 《고려사정도전》은 누가 언제 필사한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는 옹수곤이 남긴 찰기본 《해동문헌》, 《해동금석영기》와 조선 우인들에게 보낸 간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옹수곤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한 사항이나 기술해야 할 내용 초고를 메모

12) 《拾經樓袖書錄》 권상 <海東金石文字記>: 「全書皆依石刻之文字寫之, ---并博稽《朝鮮史略》, 《高麗史》, 《冊府元龜》, 《集韻》諸書考證. 書首目下鈐有‘大興翁氏石墨書樓珍藏圖書’朱文大方印, 書中<和州藥師寺碑>後有‘丁巳冬十月蘇齋記’二行, <聖德大王神鐘之銘>後有‘嘉慶二十年北平翁樹岷手識.’」(湖南近現代藏書家題跋選本, 책2, 59~60쪽) 葉啓勳은 《海東金石文字記》를 옹방강의 수고본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옹방강과 옹수곤의 합작물이다. 또 《조선사략》은 《동국사략》을 지칭한다.

형식으로 찢기해놓은 버릇이 있었다. 석목서루에는 용수곤이 죽기 직전까지 주로 조선 우인들과 간찰을 주고받으면서 해동 금석과 문헌에 관한 내용들을 붓이 가는대로 기술한 찢기원고의 종이몽치가 남아있었는데, 나중에 석목서루가 해체될 때 다른 장서와 함께 유리창 서상에게 팔려나갔다. 유리창서사로 들어간 찢기원고의 종이몽치는 보관 과정에서 우연히 흩어졌는지 아니면 서상이 비싸게 팔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개의 몽치로 분리되었다. 훗날 분리된 몽치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가 책자 형태로 묶여졌는데, 이때 책자로 묶은 자는 책명을 각각 《해동문헌》, 《해동금석영기》, 《星原筆記》 등으로 명명했다.¹³⁾

《해동문헌》은 1850년(도광 30)에 연경 장서가 劉位坦이 찢기원고의 종이몽치를 책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중국 국가도서관의 목록카드에 《해동문헌》의 저자 표기를 용수배라고 잘못 기재하고 있다. 이 책자 안에는 용수곤의 인장이 찍혀 있고, 내용 가운데 용수배 사후(1811년; 가경 16)에 용수곤이 기술한 대목이 보인다. 유위탄도 이 책자의 저자를 용수곤이라고 명기했다.¹⁴⁾

《해동문헌》 제3면에는 용수곤이 주로 고려인 약력과 문헌을 적어놓았는데, 여기에 《고려사》 보초에 관한 찢기가 보인다. 자기 집에 소장된 《고려사》는 열전 8명이 빠져있다고 하며 이것들을 보초해 보내주면 완벽한 질이 된다고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¹⁵⁾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용수곤이 소장했던 《고려사》는 완질본이 아니고, 열전 3권 분량, 즉 권31 趙浚, 권32 鄭道傳, 권39 李仁任, 林堅味, 廉興邦, 曹敏修, 邊

13)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星原筆記》를 해제할 때 당시 소장처를 적지 않았고, 현 소장처도 미상이다.

14) 《海東文獻》 劉位坦 서문: 「此冊爲蘇齋嗣君樹岷星源先生札記, 皆東國金石書籍, 若欲有所著作, 而未竟也者, 道光初, 得之故紙中, 歷卅年, 巾箱貯之未失. 比是諸城劉燕庭方伯所輯《朝鮮金石志》, 視此收羅較多, 而引證書則若不逮. 因知星原當年用力之勤, 益不忍令就湮泯, 亟裝爲冊存之.」(中國國家圖書館藏本; 이하 동일) 星源은 星原의 오기임.

15) 《海東文獻》 제3면: 「敝藏鄭麟趾《麗史》缺八人列傳, 開具如左, 新補鈔惠寄, 成茲完璧, 功德無量.」

安烈, 王安德 등 총 8명의 인물 전기가 결락되었다.

《해동금석영기》는 도광 연간에 東洲 何氏(紹基)가 입수한 이래 집안에 계속 간직되었다가 다시 시중에 흘러 나왔고, 20세기 초반에 일본 藤塚鄰이 입수했다. 2006년에 藤塚明直이 부친 藤塚鄰의 다른 장서와 함께 과천시에 기증하였다. 2013년에 과천시는 藤塚鄰 구장서들을 새로 건립한 추사박물관에 이관했다.

이 책자는 지금까지 옹방강의 저서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옹수곤이 작성한 것이다. 책자의 필체와 기술 방식이 옹수곤의 《해동문헌》과 일치하고, 내용 또한 옹수곤과 관련된 것이다. 이 책자에는 옹수곤이 김정희를 비롯한 조선 우인에게 보낸 간찰, 옹수곤이 해동 금석을 고찰하기 위한 기록들이 찰기되어 있다.¹⁶⁾

《해동금석영기》 제64면 <高麗史抄本>에는 《고려사》 보초, 해동 금석의 수집과 가치를 다룬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는 《고려사》 보초와 관련된 내용만 옮겨본다.

권32 수초본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아직 권31 <趙浚傳>이 있으니 다시 서둘러 초록하여 겨울 사신 편으로 보내주어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서(《고려사》)는 중국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뭅니다. 오로지 몇 년 전에 절강 선박이 일본으로부터 건너왔는데, 제가 친한 우인에게 부탁하여 큰 값으로써 이것을 구했습니다. 한 때 빌려서 초록하고자 하는 자들이 분분했지만, 제가 모두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책자가 다른 집에 있으면 그저 높은 곳에나 보관해두어 그저 책벌레나 막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사서에서의 잘못된 바는 실로 형께서 깨우쳐준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고증할 수 있겠습니까? 동방 사적의 오류들을 다시 조목조목 지적하여 고찰해주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쉽게 흐르고 만사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일은 秋史가 아니고 별도의 董狐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서 내에 藝文·金石 1편과 歷代年表가

16) 朴現圭, <《海東金石零記》의 저자와 분석>, 앞의 서지, 385~413쪽.

결여돼 있으니 형께서 반드시 이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¹⁷⁾

이 문장은 옹수곤이 김정희에게 간찰을 보내기 위해 사전에 내용을 정리한 찰기이다. 찰기 가운데 秋史, 즉 김정희의 호가 보인다. 옹수곤은 공자가 춘추 晉國 사관 董狐가 필법을 숨기지 않다는 고사를 칭송하며 김정희가 아니면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옹수곤이 해동 금석을 수집하고 고증함에 있어 김정희에게 의지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금석문을 고증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영광이 아니고 온 세상에 문명의 서기를 열어주고, 동방의 문예를 개척하는 책임이 김정희에게 있다고 했다.¹⁸⁾

옹수곤이 일본열도에서 돌아온 절강 상선을 통해 《고려사》를 구한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청나라 건국 초기에는 조정에서 강력한 海禁 정책을 펼쳤지만, 정국이 안정된 강희 중엽부터는 주변 국가들과 해상 교역을 허용하였다. 절강 상선이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에 가서 교역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서적도 중요 교역물 중의 하나였다. 이 시기에 해상 교역에 의해 중국 서적이 일본열도로 들어간 경우는 비밀비재하지만, 이와 반대로 일본 서적이 중국으로 들어온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일본에 소장된 한국본 또는 한국인 저술 서적은 극히 드물다. 1724년(일본 享保 9) 大阪書林에서 간행한 조선 許浚의 《東醫寶鑑》이 중국 대륙에 들어와 유통된

17) 《海東金石零記》 제64면: 「三十二弓手抄本, 感惠萬萬, 尙有弓三十一<趙浚傳>, 更乞惠急抄冬便, 專望專望, 成茲完璧. 此史在中國亦希有, 惟數年前, 浙江海舶, 自日本渡來, 弟託密友, 以重價得之, 一時借抄者紛紛. 弟皆婉詞謝之. 且此書在他家, 亦置之高閣, 徒絕老蠹耳. 史之外誤, 誠如兄諭, 然非此更何以攷定? 東方事蹟糾謬處, 更求條條指證. 光陰易居, 萬勿因循, 此事捨秋史, 別無董狐也. 弟更有請者, 史內缺藝文金石一篇及歷代年表, 兄必力任之.」(과천문화원 영인본; 이하 동일)

18) 《海東金石零記》 제65면: 「兄依《兩漢金石記》體例, 每遇一碑, 卽爲之作圖, 高下橫闊尺寸及建立年月撰書人, 逐碑詳考, 寧無掛漏. 此非一人之榮, 實薄海內外外交文明之瑞, 將來闡揚東方藝文之責, 秋史首倡之, 任大責重. 惟兄速加力辦理, 毋稍遲緩, 時哉勿失.」

경우는 있지만,¹⁹⁾ 《고려사》의 경우처럼 역사서가 일본을 통해 중국 대륙으로 들어온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장본 《고려사》를 소장하게 된 옹수곤의 애착심과 자부심이 남달랐다. 비록 일본장본 《고려사》가 일부 결락된 것이 있지만, 당시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장서가가 매우 드물다며 거금을 내어 구입했고, 또한 이 책을 자기 집에 소장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희열감이 문장 밖으로 넘쳐 나왔다. 타인들이 《고려사》를 빌려 초록하겠다는 요청이 많았지만, 이들은 이 책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서가에 두어 좀만 막을 뿐이라며 모두 거절했다.

해동 금석을 고찰함에 있어 《고려사》는 필히 참고해야 할 서적이었다. 옹수곤은 김정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사》에 일부 오류가 보이고는 있지만, 해동 금석을 고찰함에 있어 《고려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책자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구한 《고려사》 중 빠진 일부 열전을 보충하는데 온갖 힘을 쏟았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옹수곤은 劉喜海가 소장한 《고려사》를 빌려와서 교감 작업을 펼쳤다. 1814년(가경 19) 12월 초하루부터 여덟 상자나 되는 분량의 《고려사》를 빌려다가, 이듬해 3월 8일(上巳 후 5일)까지 108일 동안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장본과 교감 작업을 펼쳤다. 교감 작업을 다 마친 후에 자신의 책상 위에 두고 묘한 감정에 젖었다. 《고려사》 교감에 들었던 정성이 鄴侯의 三萬軸 고사와 같았다.²⁰⁾ 이 책을 정밀하게 섭렵한 자가 아니면 감히 옛 것을 좋아한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²¹⁾

19) 朴現圭, <《東醫寶鑑》 중국 판본 고찰>, 《中國學論叢》, 43집, 韓國中國文化學會, 2014.09, 235~260쪽.

20) 韓愈 <送諸葛覺往隨州讀書>: 「鄴侯家多書, 架插三萬軸, 一一懸牙籤, 新若手未觸。」

21) 케임브리지대학장본 《고려사》 옹수곤 지기: 「此書全部共八函, 自癸酉臘月朔借來, 與小齋藏本互校, 至甲戌上巳後五日始畢, 留於案頭, 及百有八日想見鄴侯插架三萬軸, 非專精涉獵者, 正未敢輕言嗜古也。」(보도 사진본)

옹수곤은 찰기에서 김정희에게 ‘권32 수초본’을 잘 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권31 <趙浚傳>도 초록하여 겨울 사신 편으로 보내주기를 원했다. 권31 <조준>은 《고려사》 열전 중의 한 권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옹수곤이 자신의 소장본 속에 빠져 있다는 해당 권이다. 따라서 옹수곤이 받았던 ‘권32 수초본’은 《고려사》 열전 권32 <鄭道傳>임을 알 수 있다.

《해동금석영기》 제65면 판권에는 이번에 구한 권32 <정도전> 외에 나머지 빠져있는 열전을 보초해주라는 내용이 다시 명시되어있다. 열전 권 31 <조준>, 권39 <이인임> 등 6명의 전기를 일일이 나열한 다음 이것들을 초록하여 완벽하게 이를 수 있도록 겨울 사신 편으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말을 남겼다.²²⁾

옹수곤이 빠져있는 《고려사》 <열전>을 구하고자 부탁했던 사람은 김정희 외에 또 한 명이 더 보인다. 1814년(가경 19) 정월 21일에 李光文에게 보낸 간찰에서 《고려사》 중 빠져있는 열전 권31 <조준>과 권39 <이인임> 등 6명 부분을 보초해줄 것을 요청했다.²³⁾ 옹수곤이 해동 금석을 구하는데 김정희에게 많이 의탁했지만, 때로는 다른 조선 우인들을 통해 구하기도 했다. 《고려사》 열전의 보초 요청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겠다.

이상 종합해서 풍평산도서관 소장본 《고려사정도전》의 필사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본다.

풍평산도서관장본 《고려사정도전》은 한반도에서 생산된 닥종이에다 조선판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춘 필사본이다. 이 책자에는 옹씨 석목서루의 인장이 찍혀 있다. 옹수곤이 일전에 구한 일본장본 《고려사》 가운데 결락된 8명의 열전을 김정희에게 보초를 의뢰했고, 또 김정희가 <정도전> 열전을 보초해서 보내온 것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풍평산도서관장본 《고려사정도전》은 1814년(순조 14)에 김정희가 옹수곤에게 보냈던

22) 《해동금석영기》 제64면 판권: 「寫三十一<趙浚傳>, 寫三十九<李仁任>, <林堅味>, <廉興邦>, <曹敏修>, <邊安烈>, <王安德>七人傳, 賜乞惠抄, 成茲完璧, 冬便專望, 心祝千望」

23) 藤塚鄰, 앞의 국역책, 183쪽.

조선 필사본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고려사정도전》에 보이는 필체가 김정희의 필체와 확연하게 달라 김정희가 직접 필사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²⁴⁾

V. 翁樹崐 동시대의 《高麗史》 소장 현황

본 절에서 옹수곤 동시대에 중국인들이 《고려사》를 소장하고 있는 현황을 논하기에 앞서 《고려사》가 처음 중국으로 전래된 과정부터 살펴본다. 1522년(중종 17)에 동지사 李荇이 귀국 보고를 하면서 《고려사》가 중국으로 들어간 과정을 논한 대목이 있다. 폐조 때 金輔가 사신으로 왔을 적에 《고려사》를 보여주기를 청하였다. 조정에서 이 책자를 보여주자 김보가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가져가 버렸다.²⁵⁾ 《고려사》가 중국에 처음 들어간 것은 전혀 의도되지 않았던 돌발 사건에서 이루어졌다. 명 사신 김보가 강제로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조선 조정은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김보가 《고려사》를 중국으로 가져간 사건의 연도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이행이 말한 폐조는 연산군을 지칭한다. 김보는 황해도 長湍 출신으로 일찍이 화자로 뽑혀 명 황궁으로 들어가 태감으로 활동했다. 세조 연간부터 자주 사신이 되어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연산군 연간에는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1495년(연산군 1)으로 왕과 왕비의 고명건으로 한양으로 들어왔고, 다른 한 번은 1503년(연산군 9)에 세자 책봉건으로 들어왔다가 얼마 후 한양에서 죽었다. 두 시기 가운데 김보가 《고려사》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연도는 자연히 1495년(연산군 1)으로 귀납된다. 김보가 가져간 《고려사》는 을해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을해자복각 목판본은 이

24) 필체 감정은 2011년에 고문헌가 박철상의 도움을 받았다.

25) 《중종실록》 17년 4월 6일(임오)조: 「(이행)在廢朝金輔出來時, 請見《高麗史》, 而給之, 則因持去。」

보다 훨씬 뒤에 나왔다.

이 이후 《고려사》를 언급하거나 소장한 중국 문사들이 간간히 나오다가, 옹수곤 동시대에 들어와 그 숫자가 급증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대는 옹수곤과 그의 부친 옹방강의 활동한 시기를 포함한다. 청초 朱彝尊이 발문한 《고려사》는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지만, 이 책자에 옹수곤 동시대에 지기를 단 인물이 없어 제외한다.

1790년(정조 14)에 진하부사 徐浩修는 熱河(承德)와 연경을 다녀왔다. 열하에서 吏部漢人尙書 彭元瑞가 《海東秘史》가 있느냐고 묻자, 서호수는 조선에 정인지의 《고려사》가 있다고 답변했다.²⁶⁾ 또 연경 圓明園에서 紀昀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기운이 조선 정인지 《고려사》의 체제가 잘 잡혀있고, 자신이 1부를 소장하고 있다고 했다. 서호수는 《고려사》가 중국 시중에 간행되었느냐고 묻자, 기운은 자신의 소장 책자는 조선판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²⁷⁾

《四庫全書總目提要》는 청 건륭제 때 《四庫全書》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만한 서적들의 해제를 모아 편찬한 책자이다. 여기에 《고려사》 해제가 들어가 있다. 《고려사》 해제에 의하면 저본은 편수관 汪如藻 소장본인데, 완질본이 아니고 <世系> 1권, <后妃列傳> 1권만 남아 있다고 했다.²⁸⁾ 왕여조의 자는 念孫이고, 절강 桐鄉 사람이다. 《사고전서》 편수관으로 활동할 때에 자신의 집에 소장한 장서 271종을 진상하여 저본 서적

26) 徐浩修 《燕行紀》 권3 <起圓明園至燕京> 7월 16일(갑오)조: 「吏部漢尙書彭元瑞問于余曰: 貴國有《海東秘史》, 《東國聲詩》二書云, 可得見乎? 余曰: 小邦本無秘史, 有鄭麟趾《高麗史》, 金富軾《三國史》, 而今行適未携來。」(연행록 선집본, 이하 동일)

27) 徐浩修 《燕行紀》 권3 <起圓明園至燕京> 7월 30일(무신)조: 「(기운)貴國鄭麟趾《高麗史》, 極有體段, 僕藏皮一部矣. 余曰: 然則《高麗史》已翻刻於坊間乎? 紀曰: 卽貴國板本也。」

28) 《四庫全書總目提要》 권66 史部22 <高麗史>: 「二卷, 編修汪如藻家藏本. ---考《明實錄》, 景泰二年高麗使臣鄭麟趾嘗表進是書於朝, 凡<世家>四十六卷, <志>三十九卷, <表>二卷, <列傳>五十卷, <目錄>二卷. ---此本仅<世系>一卷, <后妃列傳>一卷, 蓋偶存之殘帙, 非完書矣。」

으로 활용했다.

대만 국가도서관에 청 중엽에 필사되고 여러 명인들의 손을 거쳐 청말 錢塘 丁氏가 빠진 부분을 보충한 《고려사》가 소장되어 있다. 청구번호는 善510871이고, 전 40책이다. 행자수가 11행 20자이고, 전체가 25.7×14.3cm이다. 이 책자에 吳騫, 吳重熹, 唐翰題 등 명사들의 지기가 쓰여 있다. 이들 명사 가운데 오건은 응수곤과 동시대 활동한 인물이다. 자는 槎客이고, 호는 兔床이며, 海寧 출신이다. 생전에 서적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 장서루 拜經樓에 소장된 장서가 5만 권이 넘었다. 오건은 필사본 《고려사》를 구한 다음에 자신의 장서인인 「海豐/吳氏」(주방인), 「拜經/樓吳氏/藏書」(주방인)를 적어놓았다.

응수곤이 《고려사》 결락 부분을 한반도로 들어가는 제삼자를 통하여 조선 우인들에게 의뢰하여 보충해오는 아주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중국 대륙에서 이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보충할 다른 방도가 있었다. 당시 기운의 闕微草堂에는 조선본 《고려사》가 소장되어 있고, 오건의 배경루에는 청 필사본 《고려사》가 소장되어 있다. 특히 기운과 옹방강은 관직 생활을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친숙한 관계였다. 《사고전서》를 편찬할 때 기운은 총재관, 옹방강은 편수관으로 활동했다. 옹방강이 고찰한 《四庫全書提要稿》는 나중에 기운이 《四庫全書提要》를 적을 때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기운의 열미초당은 珠市口西大街에 소재하고, 옹방강의 석목서루는 保安寺街에 소재한다. 두 가옥 사이의 거리는 불과 1km 정도이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수곤이 왜 기운·오건이 소장한 《고려사》를 활용

29) 保安寺街는 명 정통연간에 세워진 保安禪寺에서 명명되었다. 이곳에 湘潭會館을 비롯한 여러 회관이 있고, 인근에 康有爲가 머물렀던 가옥이 있다. 최근 북경시의 재개발 계획에 따라 이 일대가 철거된 상태이다. 기운의 열미초당은 현 행정구획으로 珠市口西大街 241호에 소재한다. 기운 사후에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1958년에 晉陽飯店으로 바뀌었다. 훗날 도로 확장과 잦은 주인 교체로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근자에 북경시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고 대외 개방하고 있다.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필자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측해본다. 첫째, 옹수곤은 기운·오건이 《고려사》를 소장하고 있던 것을 몰랐을 경우이다. 기운 생전이나 기운 자손들이 집안에 《고려사》를 소장하고 있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외부 인사들이 이 책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1805년(가경 10) 기운 사후에 자손들은 珠巢街에 소재한 기운의 다른 가옥으로 이주했고, 열미초당을 타인에게 매각했다. 옹수곤은 연경에서 태어나고, 연경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옹수곤은 멀리 강남 해녕에 소재한 오씨 배경루에 《고려사》가 있다는 존재를 아예 몰랐을 것이다.

둘째, 옹수곤이 기운이 소장한 《고려사》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이다. 만약 기운 소장본 《고려사》에 옹수곤 소장본처럼 결락된 열전 부분이 일치한다면, 굳이 기운 소장본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편수관 왕여조 소장본 《고려사》는 <세계>와 <후비열전> 등 잔권 2권만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의 추측은 제외시켜도 무방할 듯하다. 기운 소장본 《고려사》는 청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유희해 소장본보다 《고려사》의 본 고향인 조선에서 나온 판본이다. 만약 옹수곤이 기운 집에 조선본 《고려사》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선본을 가지고 교감 작업을 펼쳤을 것이다.

며칠 전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University of Cambridge) 도서관에서 옹수곤이 교감했던 《고려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³⁰⁾ 향후 원본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보도 사진에 보이는 종이 상태와 필사 양식은 중국 필사본으로 추측된다. 이 책자는 유희해의 구장본이다. 책자의 서문 격인 <진고려사전>에 「劉印/喜海」(백방인), 「燕/庭」(백방인), 「嘉蔭/籙藏/書印」(주방인) 등 유희해의 인장이 찍혀 있다. 또 여기에 옹수곤과 동시대 활동한 顧廣圻가 감상했다는 「顧千里/經眼記」(주방인)가 함께 찍혀 있다.

유희해는 일생동안 금석문에 심취한 청조 금석학자이다. 그는 김정희, 趙寅永 등과 교류하며 본격적으로 해동금석 탁본과 자료를 수집하여 《海

30) <336만여 자 고려사 필사본 英서 발견 -- 케임브리지대학 도서관 139권 보관>, 《서울신문》, 2015년 2월 17일.

東金石苑》을 편찬하고, 조인영의 《海東金石存考》를 증보했다. 중국 국가도서관에 金命禧가 편찬하고 유희해가 증보한 《朝鮮書目》이 소장되어 있다. 이 서목 속에 “《高麗史》, 一百三十九卷, 明鄭麟趾等撰, 明景泰二年槧”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경태 2년은 1451년(문종 1)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약간 착오가 있다. 1451년(문종 1)에 《고려사》가 완성되었고, 1452년(단종 즉위년)에 책자가 처음 인출되었다. 케임브리지대학장 유희해구장본은 필사본이다. 따라서 《조선서목》에 수록된 《고려사》는 유희해의 소장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김명희 또는 유희해가 정인지 등이 <진고려사전>을 올린 연도에 따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19세기 초중반에 청조 금석학자들이 해동금석문의 수집과 연구에 심취하여 서로 앞을 다투며 성과물을 내놓았다. 이러한 열풍은 당시 금석 자료를 통한 고증학풍에서 나왔지만, 조선·청 양국의 우호 교류와 조선 학자들의 협조가 커다란 한 몫을 차지하였다. 옹수곤은 부친 옹방강의 학문 전통을 이어받아 평생을 금석문 연구에 쏟을 정도로 몹시 심취하였다. 김정희와 만나 평생의 지기로 여기고 해동금석문의 탁본과 자료를 수집, 고증하는데 좋은 기회로 삼았다.

香港大學 馮平山圖書館 소장 조선 필사본 《고려사정도전》은 1814년(순조 14)에 김정희가 옹수곤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보초해서 보낸 책자이다. 이 장서에는 옹씨 석목서루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고려사》는 해동금석문을 고찰하는데 필요한 참고 서적이다. 한번은 옹수곤이 절강 해상을 통해 일본장본 《고려사》를 거금을 주고 입수하고 보배로 여길 정도로 뿌듯하게 여겼다. 아쉽게도 소장본에는 8명의 열전 분량이 결락되어 완질본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 우인들에게 보초를 의뢰하였다. 《해동문헌》, 《해동금석영기》에 옹수곤이 김정희에게 《고려사정도전》을 보초해 달

라고 했고, 또 김정희가 이 책자를 보초하여 옹수곤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사정도전》은 김정희와 옹수곤 사이에 우호 교류를 증명해주는 좋은 실물이다.

1495년(연산군 1)에 《고려사》가 처음 중국으로 전래되었고, 옹수곤과 동시대에 들어와 소장하거나 언급한 중국 문사들이 급증했다. 옹씨 집안과 교류가 있는 紀昀의 閱微草堂에 조선본 《고려사》, 편수관 汪如藻에 판본 미상의 《고려사》 잔본, 남방 명문가 吳騫 拜經樓에 청 필사본 《고려사》, 《해동금석원》을 편찬한 劉喜海 嘉蔭樓에 청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고려사》가 각각 소장되어 있다. 옹수곤은 유희해장본을 빌려 자기 소장본과 교감했다. 이와 같이 당시 《고려사》는 명문 장서가들이 소장하거나 연구하는데 좋은 책자로 활용되었다. [弓洞寄室; 辛卯開天節 草藁, 乙未陰正月初五 修訂]

<References>

1. Weng Shukun(翁樹岷)[author], *Haidong wenxian*(海東文獻), National Library of China Collectible Book.
2. Weng Shukun(翁樹岷)[author], Lee Chunggyu(李忠九), Gwen Gigap(權奇甲), Kim Gyuseon(金奎璇)[translator] *Haidong jinshi lingji*(海東金石零記), Gwacheon Cultural, Gwacheon, 2010.
3. Fujitsuca Chicasi(藤塚鄰)[author], Park Huibyeong(朴熙永)[translator], *A Study of Qing Dynasth Cuture Go to East Chosun*, Academy house, 1994.
4. Park Hyungui(朴現圭), A Note on the Research Materials on the Epigraphy of Korea Collected by Qing(清) Scholar Weng Shukun(翁樹岷), *International Circle of Chinese*, vol.7, 2004.
5. _____, The Author of Haidong jinshih lingji(海東金石

- 零記) and Real State, *Daedong Chinese Literature*, Vol.35, 2011.
6. _____, A Study of Haidong wenxian(海東文獻) by Qing(清) Scholar Weng Shukun(翁樹崐), *Soonchunhyang Language and Literature of Treatises*, vol.5, 1998.

<참고문헌>

1. 翁樹崐著, 《海東文獻》, 中國國家圖書館藏本.
2. 翁樹崐著, 李忠九·權奇甲·金奎璇譯, 《海東金石零記》, 果川文化院, 2010.
3. 藤塚鄰著, 藤塚明直編, 《清朝文化東傳の研究; 嘉慶·道光學壇と李朝の金阮堂》, 國書刊行會, 東京, 1975.4; 朴熙永譯,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4. 朴現圭, <清翁樹崐海東金石資料의 札記>, 《國際中國學研究》 7집, 韓國中國學會, 2004.
5. _____, <《海東金石零記》의 저자와 분석>, 《大東漢文學》 35집, 大東漢文學會, 2011.
6. _____, <청 翁樹崐의 『海東文獻』 분석>, 《順天鄉語文論集》 5집, 順天鄉語文學研究會, 1998.

<Abstract>

The manuscript of “Biography of Jeong, DoJeon” in the History of Goryeo in the possession of Fung Ping Shan Library of Hong Kong University is a good example that showing the friendly exchange between Kim, Jeonghui of Korean and Weng, Shukun of Qing China. The book

has the stamp of Mr. Weng's Shimo shulou collection. In 1810, Kim and Weng met at Shimo shulou for the first time and became lifelong friend. They exchanged and studied epigraph materials.

Weng, Shukun managed to purchase a Japan edition of the History of Goryeo through Zhejiang marine commerce. Unfortunately, the edition missed 8 juans of biography including that of Jeong, Dojeon. Weng, Shukun requested Kim, Jeonghui to supplement the omitting parts and Kim sent Biography of Jeong, Dojeon in the History of Goryeo to Weng in 1814.

The History of Goryeo was introduced in 1495 to China for the first time. Ji Yun separately Korea edition of The History of Goryeo, Wang Ruzao separately a wanting of The History of Goryeo, Wu Qian and Liu Xihai owned separately The History of Goryeo of China copy manuscripts. Weng borrowed the edition of Liu's possession to compare with his own edition.

Key Words : Biography of Jeong Dojeon, History of Goryeo(《高麗史鄭道傳》), Kim Jeonghui(金正喜), Weng Shukun(翁樹峴), Korea Epigraph(海東金石), Fung Ping Shan Library of Hong Kong University(香港大學 馮平山圖書館)

